누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할 것인가

글 / **이 민 호** (KBMI 윤리경영연구센터 소장)

강제징집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나라를 위해 군에 자원입대했다가 전사한 미식축구스타 '팻 틸먼'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선수와 인기연예인들뿐 아니라 현역장군까지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칭송받는 '팻 틸먼'

미 풋볼리그(NFL)의 스타플레이어인 팻 틸먼은 2002년 5월 소속팀인 애리조나 카디널스로부터 '연봉 360만달러에 3년 계약'이란 호조건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마다하고 갑작스럽게 미 육군 특수부대에 지원했다. 9 · 11테러에 자극받은 그는 "할아버지 이래 가족 여럿이 전쟁터에서 싸웠지만 나는 내 할 일을 못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며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동생 케빈과 함께 입대했다.

입대 후 파키스탄 접경지대에서 근무하던 그는 지난 4월 23일 반군과의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NFL은 이날 대형 스크린 밑에 선수시절 틸먼의 사진과 유니폼을 걸어놓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아들 '테드 2세'가 57세에 장군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이야기는 '사상 최대의 작전(The Longest Day)'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이렇듯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지도층의 자제나 인기스타들이 참전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칭송받는다.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실천이 국민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북돋우고 오늘날 미국이 지닌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반대편에 선 병역비리 연루자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선수와 인기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이 드러나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의무행정 책임자인 현역장군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병역 면탈을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문광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병역비리 탤런트의 입영연기를 위한 탄원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다.

탄원사유는 병역비리 탤런트가 출연해온 드라마를 완성해 한류열풍을 지속시키자는 것이다. 문화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병역비리를 잠시 눈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가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칫 편협한 판단으로 국가이익을 내세워 범법행위자의 편리를 보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병무청에서 이들의 탄원을 거절하고 병역비리 연예인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러한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참으로 씁쓸하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병역의무를 마친 인기인이나 스포츠스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행동을 부각시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삼지는 못할망정 병역비리 연예인을 내세워 국가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국가 핵심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국가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국 축구스타를 애도하는 미국 국민의 행동이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문의 : KBMI윤리경영연구센터(www.kbmi.or.kr) 02-557-1747〉